

#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

이민선 · 한기향<sup>†</sup>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패션디자인학과

##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Body Image in the Associ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 Ag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Minsun Lee · Ki Hyang Han<sup>†</sup>

Dept. of Fashion Design,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Received June 21, 2022; Revised (August 18, 2022; September 1, 2022); Accepted September 6, 2022

### Abstract

In societ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youthful appearance, attitudes toward aging are closely related to how individuals perceive their own bodies, which can be a major determina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attitudes toward aging, positive body ima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Korean adults, based on relative deprivation theory and social identity theory. Employing an online survey questionnaire, data was collected from 408 Korean aged 65 and over. The proposed research model was examined via 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Results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psychosocial loss were associated with lower positive body image, while higher levels of physical change and psychological growth - a good exampl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positive body image. Higher levels of positive body imag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ife satisfaction. Overall, positive attitudes toward aging may increase positive body ima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controlling for subjective financial and health status.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at we should 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positive body image i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Key words:** Attitudes toward aging, Positive body image, Life satisfaction, Older adults; 노화에 대한 태도, 긍정적 신체 이미지, 삶의 만족도, 노인

## I. 서 론

많은 나라에서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World Population Ageing 2019: Highlights』(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

sion, 2019)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7억 3백만 명이며, 2050년까지 약 15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선진국의 기대 수명은 76~80세로 나타나는데, 2050년에는 세계 인구 6명당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이 노년기의 삶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노화로 인한 변화를 고민하고 또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kihyanghan@hanmail.net

노년층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개인적·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은퇴, 사회적 역할의 변화, 우울, 외로움, 근육 퇴화, 청력·시력의 약화, 주름, 흰머리, 실질 체중의 감소, 신체 지방의 증가, 호르몬의 변화 등 사회적·정신적·신체적 변화를 다양하게 경험한다(Cameron et al., 2019; Kim & Park, 2015). 그중에서도,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는 개인을 ‘노인’ 집단으로 분류하는 가장 큰 시각적 특징이 된다. 현대사회는 젊고 건강한 신체를 이상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은 젊어 보이는 사람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Kozar & Damhorst, 2009). 다시 말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신체를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러한 시각은 노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은 개인의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Jackson, 2002).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자신의 나이와 노화된 신체 및 외모 때문에 젊은 사람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분명 노년기가 갖는 특징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변화들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서구 문화권의 사회에서도 노인은 매력적이거나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낮은 사회적 지위로 대우하는 경우가 많다(Bugental & Hehman, 2007).

노년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현재 노인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며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An et al., 2021). 또한 사회에서 공유되는 노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행동은 노화에 대한 노인들 스스로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내에서의 집단 간 관계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대표적 이론인 상대적 박탈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은 사회 내의 전반적인 노화에 대한

태도 형성, 노인의 정체성, 신체 및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Gendron et al., 2018). 각 연령 집단은 다른 연령 집단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특징적 관계를 통해 집단 고유의 정체성을 갖게 되며(Calasanti, 2005), 이렇게 형성된 각 연령 집단의 정체성은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각 개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하며, 남들과의 비교와 경쟁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회적 명성이나 이익을 통해 더욱 향상된 자신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을 갖는다. 이 특성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태도가 개인이 속한 사회와 사회 내 여러 집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노년기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특성과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에 관해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건강(Choi & Lee, 2021), 복지(Lee, 2021), 사회·여가 활동(Lim, 2020), 경제적인 요인(Noh, 2018)에 집중해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건강 및 경제력 관련 문제는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관련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국내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로써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 이외에도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외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 젊음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노년기의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노화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고찰해 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태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인식으로 점점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Sabik, 2015).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정신·사회적 상실, 신체의 기능 및 건강의 변화, 정신적 성숙-즐거움, 정신적 성숙-본보기),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제시하고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또한 노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상대적 박탈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함으로써 노년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상대적 박탈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

상대적 박탈 이론은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또는 가지고 싶은 무언가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상황을 설명한다.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누리고 있는 조건이 타인의 상황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느끼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Crosby, 1976). Runciman(1966)은 상대적 박탈이란 불편함을 초래하는 비교(invidious comparison)를 통해 느끼게 되는 불만족스러운 감정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 A는 (1) 자신이 어떤 대상이나 기회(X)를 갖고 있지 않고, (2) X를 가진 사람(과거의 자신도 포함)을 알고 있고, (3) X를 가지고 싶고, (4) 자신이 X를 가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때 개인은 X를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 후 스스로 X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 박탈감은 집단행동(Kawakami & Dion, 1995), 폭력적 극단주의(Kunst & Obaidi, 2020), 공격성(Greitemeyer & Sagioglou, 2019), 스트레스(Inoue et al., 2019), 낮은 주관적 웰빙(Bellani & D'Ambrosio, 2011) 등의 여러 정신적·행동적 결과와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다(Smith et al., 2012). 또한 타 집단과의 관계와 비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를 설명하는 상대적 박탈 이론은 인종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태도를 비롯해 차별과 관련된 심리 및 행동 연구에 적용된다(Gendron et al., 2018; Kim & Hahn, 2008; Taylor, 2002; Triana et al., 2017).

자신이 현재 지닌 것과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결과물의 차이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인 반응을 설명하는 상대적 박탈 이론은 나이 때문에 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변화로 인한 차별적인 경험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설명한다(Tougas et al., 2004; Triana et al., 2017). 특히 우리 사회에서 지속해서 보이는 핵가족화와 부양 의식의 약화 등 가족 체계 및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을 높일 수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받았던 대우, 현재 노인들이 젊었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을 대하던 태도가 지금 자신들이 받는 사

회적인 대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노인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 스스로 자신의 노화 과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 개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의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우울을 느끼게 하며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보고했으며, Kim(2019)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소득 중심의 경제적 박탈 외의 다차원적인 결핍(사회적·직업경제적·건강의료적 박탈 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 2.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사회 정체성 이론은 사람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의 소속감-사회적 정체성-을 가지며, 사회적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Tajfel & Turner, 1979). 집단 소속감에 기반한 자기 개념의 일부인 사회적 정체성은 집단 간 행동을 설명하며, 개인적 정체성과 함께 개인과 집단 간의 행동을 예측한다. 특히 이 이론은 세 가지의 주요 영역인 범주화(categorization), 동일시(identification), 비교(comparison)를 포함한다. 개인의 사회적인 범주는 자기 개념의 한 부분으로서 그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Hogg et al., 1995).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양한 기준(종교, 나이, 소득, 직업 등)을 가지고 상호 간의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범주화라고 정의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자신을 관련지으려고 하며, 동일 집단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과 자신을 동일시해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Stets & Burke, 2000). 이러한 동일시 과정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고방식과 행동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개인의 성향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의 비교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집단과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다. 즉, 사람들은 특정 기준으로 분류되는 집단에 자신과 타인을 소속시키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신의 소속 집단과 다른 집단을 비교하고 차별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 정

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즉, 스스로 겪고 있는 노년기의 변화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 형성은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Gendron et al., 2018).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를 먹고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태도,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노화로 인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개인적·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Calasant, 2005). 선행연구에서도 노인들은 사회에서의 연령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Yu & Lee, 2019a), 심지어 젊은 세대들도 노인 집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자신이 앞으로 겪을 노년기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높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lan & Johnson, 2008).

노인에 대한 편견은 현재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노인에 대한 편견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국 ‘나’와 관련되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다(Levy, 2009). 아울러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사람의 일생에 걸쳐 학습되고 내면화되어 나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갖게 한다(Kim, 2020).

### 3. 노화에 대한 태도와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노화에 대한 태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는 다양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부정적인 평가 속성으로 정의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Moser et al., 2011). Laidlaw et al.(2007)은 노화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를 기준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 정신·사회적인 상실, 신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성숙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정신·사회적인 상실은 노년기를 주로 정신·사회적인 상실을 경험하는 부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인 변화는 건강 상태 및 운동 활동 그리고 노화 자체로 인한 변

화에 기인한 신체 기능의 변화에 관한 것이며, 정신적인 성숙은 지혜 또는 성숙으로 대표될 수 있는 노년기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서 노년기를 혜택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러한 노화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신체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Halliwell & Dittmar, 2003). 특히 노년 여성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이유가 자신의 나이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노년 여성의 신체와 건강 관련 만족도를 낮아지게 한다(Sabik, 2015).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신체 불만족이나 신체 만족 수준의 높고 낮음이라는 단순한 개념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닌,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 관심, 인식, 행동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Tiggemann & McCourt, 2013). 보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또 자신만의 특별함에 집중하는,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개념이 여성 중심으로 설명되거나,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며 서로 다른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성별, 성 정체성,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특히 노년층에 있어서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 수준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neses et al., 2019).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노화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Laidlaw et al., 2018). 선행연구에서는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화 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지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Han & Kim, 2015). 또한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Levy et al., 2002). Bryant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Laidlaw et al.(2007)이 제안한 정신·사회적 상실, 신체 기능 및 건강 변화, 정신적 성숙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정신적 웰빙의 관계를 60세 이상의 호주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화로 인한 변화의 세 요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노인의 높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만족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삶을 우울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건강과 신체 기능의 약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Kong & You, 2013; Misra et al., 1996). 즉, 노인이 갖는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변화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화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 신체 이미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국내 노인 여성의 경우에는 Laidlaw et al.(2007)의 노화 태도가 정신·사회적 상실, 신체 기능 및 건강 변화, 정신적 성숙-즐거움, 정신적 성숙-본보기의 네 요인으로 구분된다는 Yu and Lee(2019a)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노화 태도로 구분하였다.

- 가설 1. 정신·사회적 상실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신체 기능 및 건강 변화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정신적 성숙-즐거움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정신적 성숙-본보기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성공적인 노화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Phelan et al., 2004).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형성되지만, 노화로 인해 변화된 사회적·정신적·신체적인 특징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도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노화에 대한 태도는 노인들의 자기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Marquet et al., 2019).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태도, 행동이 집단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그 집단 구성원의 정체성(Kim & Park, 2006), 자아 존중감(Whitbourne & Sneed, 2002), 정신적 웰빙(Sabik, 2015)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삶의 질을 낮아지게 한다. 개인의 정체성, 자신감, 자아 존중감은 자신이 포함된 집단에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Tajfel, 1974).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신체 이미지, 노인의 정신적 웰빙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Bergman(2022)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유의한 관계는 자아 존중감과 신체 만족

도가 낮은 노인들에게서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노년층의 정신적인 웰빙을 설명하는 개인적인 요인인 신체 이미지의 주요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자아 존중감, 낙관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주도적인 대처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된다(Avalos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 다양한 노화에 대한 태도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 가설 5.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삶의 만족도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6. 정신·사회적 상실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가설 7. 신체 기능 및 건강 변화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가설 8. 정신적 성숙-즐거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가설 9. 정신적 성숙-본보기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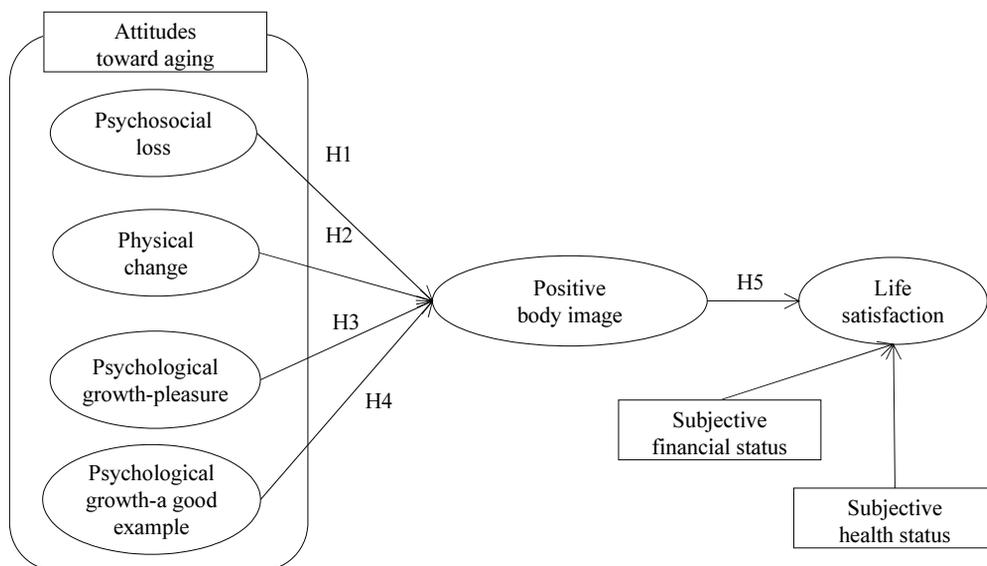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안된 노화에 대한 태도, 긍정적 신체 이미지, 삶의 만족도 관계의 연구모형은 연구가설과 함께 <Fig. 1>에 제시되었다. 주요 연구변수와 함께 삶의 만족도 변수에 미치는 주관적 경제적 상태와 건강 상태가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Noh, 2018).

#### 2. 표본 특성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국내 남녀 노인(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목적, 내용, 연구 참여자 권리 등이 포함된 설명서가 제공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을 통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응답자에게 설문



- H6: Psychosocial loss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 H7: Physical change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 H8: Psychological growth-pleasure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 H9: 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링크가 제공되었다. 설문 조사는 2021년 11월에 실시되었고, 총 699명의 참여자 중에서 설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에 잘못 응답한 128명, 중도 포기 87명, 불성실 응답 76명을 제외한, 408명의 응답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을 완료한 응답자는 시장 조사 회사를 통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를 받았다.

전체 응답자는 남자 266명, 여자 14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68.51세(S.D.=3.83)였다(Table 1). 전체의 57.11%(n=233)는 은퇴 후 현재 직업이 없었으며, 대학교 졸업(n=183, 44.85%)과 고등학교 졸업(n=125, 30.64%)이 가장 큰 비중의 교육 수준을 차지하였다. 남성 응답자의 키와 몸무게는 평균 169.64 cm(S.D.=5.21),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157.71 cm(S.D.=4.42)로 조사되었다.

### 3. 측정도구

설문에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연구변수, 통제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노화에 대한 태도는 Attitudes to Ageing Questionnaire-Short Form(AAQ-SF)(Laidlaw et al., 2018)의 12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국내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4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됨이 확인되었으며, 정신·사회적 상실(psychosocial loss), 신체 기능 변화(physical change), 정신적 성숙-즐거움(psychological growth-pleasure), 정신적 성숙-본보기(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를 포함한다(Yu & Lee, 2019a).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정신·사회적 상실 차원의 경우에는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노년기는 우울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의미하며, 다른 3개의 하위 차원은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였다.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최근의 신체 이미지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Body Appreciation Scale-2(BAS-2)(Tylka & Wood-Barcalow, 2015)에서 총 9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N = 408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42	34.80
	Male	266	65.20
Age (Mean = 68.51, S.D. = 3.83)	65-69 years	293	71.81
	70-79 years	108	26.47
	80-89 years	7	1.72
Occupation	Yes	162	39.70
	No, retired	233	57.11
	No, never had a job	13	3.19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24	5.89
	High school	125	30.64
	2 year college	24	5.88
	Bachelor's degree	183	44.85
	Post-graduate degree	52	12.75
Religion	Yes	253	62.01
	No	155	37.99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12	2.94
	Married	333	81.62
	Separate	5	1.23
	Divorced	30	7.35
	Widowed	27	6.62
	Other	1	0.25
Height (cm)	Female: Mean = 157.71, S.D. = 4.42, min = 147, max = 168 Male: Mean = 169.64, S.D. = 5.21, min = 149, max = 183		
Weight (kg)	Female: Mean = 56.28, S.D. = 8.24, min = 37, max = 82 Male: Mean = 68.89, S.D. = 9.97, min = 49, max = 149		

은 '1=전혀 그런 적이 없다', '2=가끔 그렇다', '3=때때로 그렇다', '4=자주 그렇다', '5=항상 그렇다'의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신체 이미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Diener et al., 1985)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의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응답의 평균 점수는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 포함된 주관적 경제 상태와 건강 상태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과 건강 상태에 대한 종합적 생각을 묻는 각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리커트형 5점 척도를 활용하였고,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 및 건강 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는 성별, 나이, 은퇴 여부, 교육 수준, 종교 유무, 결혼 상태, 키, 몸무게가 포함되었다.

#### 4. 분석 방법

주요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탐색적 요인 분석은 SPSS 25.0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측정 모형분석, 구조모형분석, 가설 검증은 SmartPLS 3.3.9를 활용하여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형(Covariance-based SEM; CB-SEM)과 비교하여, PLS-SEM은 연구분석의 상황이 탐험적 분석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키거나 분석의 주목적이 표적 구조 예측 또는 설명일 때 더 적합한 방법으로 제안된다(Hair et al., 2022). 특히 PLS-SEM은 표본의 크기가 작거나,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표변수의 수가 많고 변수 간 관계가 복잡한 모형의 경우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 사회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

도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탐색적 분석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PLS-SEM의 적용이 더 적합할 것이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주요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는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높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경제 및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남녀 집단에서 같은 패턴을 보였다.

#### 2.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변수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시행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 $\alpha$ )를 확인하였다. 노화에 대한 태도, 긍정적 신체 이미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총 26문항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Table 3>, 고유값이 1.00 이상인 여섯 요인이 도출되었고, 모든 문항은 각 연구변수 및 하위 요인에 포함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요인적재량은 모두 .60 이상이었으며, 각 변수의  $\alpha$ 는 .70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 3. 측정모형분석

측정모형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ranged from .53 to .92)과 평균분산추출값(ranged from .55 to .72)은 .50 이상이었다(Table 4). 요인적재량은 .70 이상인 경우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평균분산추출값이 .50 보다 크다면 .50을 요인적재량의 판정기준치로 사용할 수 있다(Hair et al., 2009).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는 .74에서 .93으로 측정되었다.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공근은 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즉, 측정항목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모든 연구변수의 분산팽창요인값(Variance Inflation Factor;

Table 2. Correlations and discriminant validity

	Mean (S.D.)	1	2	3	4	5	6	7	8
1. ATA 1	2.77 (.84)	<b>.77</b>	-.36***	-.26***	-.19**	-.30***	-.39***	-.25***	-.34***
2. ATA 2	3.06 (.87)	-.23**	<b>.74</b>	.36***	.36***	.47***	.42***	.37***	.63***
3. ATA 3	2.02 (.92)	-.27**	.44***	<b>.85</b>	.37***	.39***	.40***	.19**	.25***
4. ATA 4	3.42 (.87)	-.10	.44***	.43***	<b>.77</b>	.36***	.27***	.12*	.21**
5. Positive body image	3.68 (.76)	-.34***	.38***	.27**	.39***	<b>.76</b>	.60***	.35***	.43***
6. Life satisfaction	3.97 (1.35)	-.49***	.41***	.34***	.30***	.63***	<b>.85</b>	.61***	.39***
7. Subjective financial status	2.82 (.79)	-.36***	.42***	.19*	.24**	.36***	.58***	<b>1.00</b>	.44***
8. Subjective health status	3.11 (.87)	-.34***	.67***	.36***	.29**	.37***	.42***	.36***	<b>1.00</b>

\* $p < .05$ , \*\* $p < .01$ , \*\*\* $p < .001$

Results for men are reported in the upper diagonal and for women in the lower diagonal.

Square root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 estimates are in bold.

ATA 1 = Attitudes toward aging\_Psychosocial loss; ATA 2 = Attitudes toward aging\_Physical change; ATA 3 = Attitudes toward aging\_Psychological growth-pleasure; ATA 4 = Attitudes toward aging\_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

Construct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alpha$	
Positive body image	Item 1. I feel good about my body.	.77	9.83	37.79 (37.79)	.92	
	Item 2. I feel that my body has at least some good qualities.	.76				
	Item 3.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my body.	.77				
	Item 4. I am attentive to my body's needs.	.71				
	Item 5. I feel love for my body.	.76				
	Item 6. I appreciate the different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my body.	.75				
	Item 7. My behaviour reveals my positive attitude toward my body; for example, I hold my head high and smile.	.74				
	Item 8. I am comfortable in my body.	.66				
	Item 9. I feel like I am beautiful even if I am different from media images of attractive people (e.g., models, actresses/actors).	.70				
Life satisfaction	Item 1. In most ways, my life is close to my ideal.	.82	2.49	9.57 (47.36)	.93	
	Item 2. The conditions of my life are excellent.	.82				
	Item 3. I am satisfied with my life.	.80				
	Item 4. So far I have gotten the important things I want in life.	.80				
	Item 5. If I could live my life over,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	.73				
Attitudes toward aging	<u>Psychosocial loss</u>		2.10	8.07 (55.43)	.85	
	Item 1. Old age is a depressing time of life.	.80				
	Item 2. I see old age mainly as a time of loss.	.78				
	Item 3. As I get older, I find it more difficult to make new friends.	.77				
	Item 4. I feel excluded from things because of my age.	.82				
	<u>Physical change</u>		1.62	6.22 (61.65)	.82	
	Item 1. I don't feel old.	.67				
	Item 2. I have more energy now than I expected for my age.	.82				
	Item 3. My health is better than I expected for my age.	.81				
	Item 4. I keep as fit and active as possible by exercising.	.71				
	<u>Psychological growth-pleasure</u>		1.36	5.23 (66.88)	.83	
	Item 1. It is a privilege to grow old.	.88				
Item 2. There are many pleasant things about growing older.	.83					
<u>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u>		1.01	3.90 (70.78)	.73		
Item 1. It is very important to pass on the benefits of my experiences to younger people	.77					
Item 2. I want to give a good example to younger people.	.86					

VIF)은 5.00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어(ranged from 1.19 to 1.52)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4. 구조모형분석과 가설 검증

연구모형분석과 가설 검증을 위해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를 사용하여 모형의 예측

정확성을 판단하고, 부트스트래핑 기법(5000 subsamples)을 사용하여 제안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blindfolding( $D=7$ )을 사용하여 예측 적합성 (Stone-Geisser's  $Q^2$ )을 평가하였다. 결정계수 분석 결과, 연구모형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 분산의 34.2%, 삶의 만족도 분산의 6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Q^2$ 값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18)와 삶의 만족도(=.43) 모두 0.00 이상으로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Table 4. Results for the examination of measurement model**

Construct	Items	Outer loading	AVE	CR
ATA 1	Item 1	.86	.59	.85
	Item 2	.83		
	Item 3	.59		
	Item 4	.75		
ATA 2	Item 1	.55	.55	.83
	Item 2	.77		
	Item 3	.89		
ATA 3	Item 1	.77	.72	.84
	Item 2	.92		
ATA 4	Item 1	.84	.59	.74
	Item 2	.68		
Positive body image	Item 1	.85	.57	.92
	Item 2	.79		
	Item 3	.86		
	Item 4	.53		
	Item 5	.65		
	Item 6	.69		
	Item 7	.71		
	Item 8	.92		
	Item 9	.75		
Life satisfaction	Item 1	.88	.72	.93
	Item 2	.89		
	Item 3	.89		
	Item 4	.81		
	Item 5	.78		

ATA 1 = Attitudes toward aging\_Psychosocial loss; ATA 2 = Attitudes toward aging\_Physical change; ATA 3 = Attitudes toward aging\_Psychological growth-pleasure; ATA 4 = Attitudes toward aging\_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

구조모형의 예측 적합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표준화 평균 제곱근 잔차(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SRMR)는 .06으로 연구모형의 좋은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각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Table 5>, 정신·사회적 상실이 높을수록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유의하게 낮았고( $\beta = -.18, p < .01$ ), 신체 기능 변화는 높을수록 긍정적 신체 이미지가 높았다( $\beta = .29, p < .001$ ). 즉, 가설 1과 2는 지지되었다. 정신적 성숙-즐거움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유의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beta = .09, p = .13$ ), 가설 3은 기각

되었다. 이에 반해, 정신적 성숙-본보기가 높을수록 긍정적 신체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beta = .22, p < .01$ ). 즉,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즉, 노년기의 정신적 성숙-즐거움과 관련된 태도를 제외한 정신·사회적 상실, 신체 기능의 변화, 정신적 성숙-본보기와 관련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beta = .49, p < .001$ ),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주관적 경제 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eta = .44, p < .001$ ), 주관적 건

Table 5. Structural model results for hypothesis test

Direct path		$\beta$	$t$	Hypothesis test	$f^2$
H1	Psychosocial loss → Positive body image	-.18**	13.05	Supported	.04
H2	Physical change → Positive body image	.29***	4.33	Supported	.08
H3	Psychological growth-pleasure → Positive body image	.09	1.53	Not supported	.01
H4	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 → Positive body image	.22**	3.14	Supported	.05
H5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49***	13.05	Supported	.48
Indirect path		$\beta$	$t$	Hypothesis test	97.5% CI
H6	Psychosocial loss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09**	3.12	Supported	[-.14, -.03]
H7	Physical change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14***	4.26	Supported	[.08, .21]
H8	Psychological growth-pleasure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04	1.50	Not supported	[-.01, .11]
H9	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11**	3.04	Supported	[.04, .18]

\*\* $p < .01$ , \*\*\* $p < .001$

강 상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 = .02, p = .61$ ). 본 연구의 결과는 유럽계 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나이 때문에 받는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Sabik(2015)의 연구와 국내 노인 여성의 연령차별 인식과 외모 만족 사이의 부(-)적 관계를 검증한 Yu and Lee(2019b)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에 반해, 정신적 성숙-즐거움의 요인은 통계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신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고 또 즐거운 점이 많다고 느끼는 것은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설명하는 다른 노화 태도와 관련된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정신적 성숙-즐거움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시된 간접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정신·사회적 상실( $\beta = -.09, p < .01$ )과 신체 기능 변화( $\beta = .14, p < .001$ )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즉, 가설 6과 가설 7은 지지되었다. 정신적 성숙-즐거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beta = .04, p = .14$ ), 정신적 성숙-본보기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삶

의 만족도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eta = .11, p < .01$ ). 즉, 가설 8은 기각되었고, 가설 9는 지지되었다. 긍정적 노화 태도는 노인의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자신의 노화된 신체에 대한 태도와 신체 만족의 밀접한 연관성(Sabik & Cole, 2017)과 신체 만족과 높은 행복감, 높은 삶의 만족, 낮은 우울 등의 정신적 웰빙 사이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Reboussin et al., 2000; Sánchez-Cabrero et al., 2020)의 결과와 일치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결과는 제안된 연구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는 노화 태도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우울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 수준을 낮아지게 하며 이는 그들의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약화되었지만 자신의 객관적인 나이보다 스스로를 젊게 인식하고 운동 등의 관리를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는 태도(신체 기능 변화)와 젊은 세대에게 바람직한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태도(정신적 성숙-본보기)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를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로 이어졌

다. 이는 노년층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노화 태도와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영향력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 5. 추가 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 검증된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완전매개인지 불완전매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노화에 대한 태도변수와 삶의 만족 사이의 직접경로를 추가한 모형에 대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 분산의 34.2%, 삶의 만족도 분산의 65.6%를 설명하였으며, 모형의 예측 적합성(긍정적 신체 이미지  $Q^2=.17$ , 삶의 만족도  $Q^2=.45$ )과 적합도(SRMR=.05)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접경로의 유의성 분석 결과, 정신·사회적 상실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 $\beta=-.16, p<.01$ ), 정신적 성숙-즐거움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 )적 관계가 있었다( $\beta=.14, p<.01$ ). 이에 반해, 신체 기능 변화( $\beta=-.00, p=.94$ )와 정신적 성숙-본보기( $\beta=-.01, p=.91$ )는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및 간접경로의 유의성 결과는 정신·사회적 상실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미치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는 불완전매개이며, 신체 기능 변화 및 정신적 성숙-본보기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 있어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임을 의미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 긍정적 신체 이미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검증했다. 주요 변수 및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선행연구 및 상대적 박탈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설명하고, 노화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 있어 긍정적 신체 이미지가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 및 건강 상태를 통제하며 변수 간 관계를 더 명확히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노화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변수 간의 관계는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주관적 경제 및 건강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행복한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다양한 요인에는 개인의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가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외모에 대한 기준이 젊음에 맞추어져 있는 우리 사회의 노인에게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 향상을 위한 패션 광고 및 캠페인의 대상은 노년층을 포함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닌 이론적·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상대적 박탈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을 기반으로 국내 노인들의 노화에 대한 태도 형성을 설명한다는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노인 집단에 대한 편견은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데, 이는 노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년기를 보내게 될 사람들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노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노인 집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편견은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겪고 있는 노화의 과정을 우울하게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년기는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겪게 되는 가장 긴 인생 주기인 것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화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노년기의 여가, 복지, 사회생활, 건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기반해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세대를 위한 여가·교육·복지 등의 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세대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Kim & Ha, 2013; Kim & Park, 2015).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노인의 노화 태도와 삶의 질을 고찰했다는 시의성을 지닌다. 이미 노인에 대한 선입견은 존재해 왔지만, Swift and Chasteen(2021)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며 모든 노인을 취약한 집단 구성원으로 동일하게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노인이라는 존재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적 표현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인들은 이전보다 사회 활동과 여가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정보 활용이 어려운 노인 집단은 다양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실점에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노화 및 신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관련된 후속 연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대적 박탈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이 노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이론적인 바탕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의 차원이나 사회적 정체성 수준에 따른 노화 태도의 차이점 등 세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상대적 박탈 이론에서는 개인 간 비교로부터 느끼는 박탈감(egoistic relative deprivation)과 집단 간 비교를 통해 느끼는 박탈감(collective relative deprivation)의 두 차원을 설명한다(Runciman, 1966). 박탈감 차원과 수준 및 사회적 정체성 수준에 따른 노화의 태도와 연령차별 인식의 차이를 각각 고찰하는 후속 연구는 노인의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삶의 만족도에 궁극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지만, 연구결과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노화로 인한 외모의 변화는 여성에게 더 부정적이며 또 이로 인해 차별적인 대우를 크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Antonucci et al., 2010) 노화 태도,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노인 남녀 집단 간의 차이점을 고찰하는 후속 연구가 제안된다.

1. 사사

해당사항 없음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연구관련자료의 접근 권한이 연구책임자로 국한되어 있는 이유로 공개가 불가함. 하지만 합당한 요청이 있을 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는 교신저자가 제공 가능함.

4. 이해관계 상충

해당사항 없음

5. 연구비 지원

본 논문은 2022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6. 저자의 기여

ML는 연구 계획,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원고 작성을 주로 담당하였고, KHH은 자료 수집, 원고 수정 및 검토를 주로 담당하였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7. 저자 정보

**이민선**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한기향**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References

Allan, L. J., & Johnson, J. A. (2008).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role of knowledge, contact and aging anxiety. *Educational Gerontology, 35*(1), 1–14. doi:10.1080/03601270802299780

An, S., Lee, H., & Chung, S. (2021). Social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shared online: Focusing on social big data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1*(4), 505–525. doi:10.31888/JKGS.2021.41.4.505

Antonucci, T. C., Blieszner, R., & Denmark, F. L. (201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older women. In H. Landrine, & N. F. Russo (Eds.), *Handbook of diversity in feminist psychology* (pp. 233–257).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Avalos, L., Tylka, T. L., & Wood-Barcalow, N. (2005). The Body Appreciation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Body Image, 2*(3), 285–297. doi:10.1016/j.bodyim.2005.06.002

- Bellani, L., & D'Ambrosio, C. (2011). Deprivation, social exclu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4*(1), 67–86. doi:10.1007/s11205-010-9718-0
- Bergman, Y. S. (2022). Age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older adults: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and body imag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41*(3), 836–841. doi:10.1177/07334648211009658
- Bryant, C., Bei, B., Gilson, K., Komiti, A., Jackson, H., & Judd, F.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 aging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older adult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4*(10), 1674–1683. doi:10.1017/S1041610212000774
- Bugental, D. B., & Hehman, J. A. (2007). Ageism: A review of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1*(1), 173–216. doi:10.1111/j.1751-2409.2007.00007.x
- Calasanti, T. (2005). Ageism, gravity, and gender: Experiences of aging bodies. *Generations, 29*(3), 8–12.
- Cameron, E., Ward, P., Mandville-Anstey, S. A., & Coombs, A. (2019). The female aging body: A systematic review of female perspectives on aging, health, and body image. *Journal of Women & Aging, 31*(1), 3–17. doi:10.1080/08952841.2018.1449586
- Choi, H. K., & Lee, S. H. (2021). The impact of older adults' health status on their life satisfaction: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attitude toward one's own aging. *Journal of Social Science, 32*(1), 309–327. doi:10.16881/jss.2021.01.32.1.309
- Crosby, F. (1976). A model of egoistical relative deprivation. *Psychological Review, 83*(2), 85–113. doi:10.1037/0033-295X.83.2.8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oi:10.1207/s15327752jpa4901\_13
- Gendron, T. L., Inker, J., & Welleford, E. A. (2018). A theory of relational ageism: A discourse analysis of the 2015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The Gerontologist, 58*(2), 242–250. doi:10.1093/geront/gnw155
- Greitemeyer, T., & Sagioglou, C. (2019). The impact of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on aggression over tim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9*(6), 664–675. doi:10.1080/00224545.2018.1549013
-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New York, NY: Pearson Education.
- Hair, J. F. Jr., Hult, G. T. M., Ringle, C. M., & Sarstedt, M. (2022).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Halliwell, E., & Dittmar, H. (2003).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women's and men's body image concerns and their attitudes toward aging. *Sex Roles, 49*(11-12), 675–684. doi:10.1023/B:SERS.0000003137.71080.97
- Han, S.-J., & Kim, H.-S. (2015). Influences on the aging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2), 1164–1174. doi:10.5762/KAIS.2015.16.2.1164
- Hogg, M. A., Terry, D. J., & White, K. M. (1995). A tale of two theories: A critical comparison of identity theory with social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8*(4), 255–269. doi:10.2307/2787127
- Inoue, Y., Howard, A. G., Yazawa, A., Kondo, N., & Gordon-Larsen, P. (2019). Relative deprivation of assets defined at multiple geographic scales, perceived stress and self-rated health in China. *Health & Place, 58*:102117. doi:10.1016/j.healthplace.2019.04.007
- Jackson, L. A. (2002). Physical attractiveness: A sociocultural perspective.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pp. 13–21).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awakami, K., & Dion, K. L. (1995). Social identity and affect as determinants of collective action: Toward an integration of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identity theories. *Theory & Psychology, 5*(4), 551–577. doi:10.1177/0959354395054005
- Kim, E.-K., & Ha, K.-S. (2013). The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2), 811–820. doi:10.14400/JDPM.2013.11.12.811
- Kim, H.-C. (2019). Depression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oeconomic deprivatio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2), 231–247. doi:10.5392/JKCA.2019.19.02.231
- Kim, H.-S., & Park, S.-M. (2006). The effect of the perceived legitimacy and stability of group status and the group identity on the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4), 71–95.
- Kim, J.-H., & Park, J.-Y. (2015). The influence of anxiety over aging of the elderly group on successful aging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9), 210–222. doi:10.5392/JKCA.2015.15.09.210
- Kim, K.-m., & Hahn, Y.-s. (2008). Gender social identity, relative deprivation and collective action of Korean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3*(4), 453–477. doi:10.18205/kpa.2008.13.4.004
- Kim, S. (2020). The relationship of ageism, leisure-time utilization, and feelings of loneliness among older adults living

- in metropolitan area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4), 211–244. doi:10.15709/hswr.2020.40.4.211
- Kim, S.-y., Heo, S.-h., & Chang, S.-j. (2018).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1), 88–124. doi:10.15709/hswr.2018.38.1.88
- Kong, F., & You, X. (2013). Loneliness and self-esteem as mediators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late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1), 271–279. doi:10.1007/s11205-011-9930-6
- Kozar, J. M., & Damhorst, M. L. (2009). Comparison of the ideal and real body as women age: Relationships to age identity, body satisfaction and importance, and attention to models in advertis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7(3), 197–210. doi:10.1177/0887302X08326351
- Kunst, J. R., & Obaidi, M. (2020). Understanding violent extremism in the 21st century: the (re)emerging role of relative deprivation.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35, 55–59. doi:10.1016/j.copsyc.2020.03.010
- Laidlaw, K., Kishita, N., Shenkin, S. D., & Power, M. J. (2018).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Attitudes to Ageing Questionnaire (AAQ).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33(1), 113–121. doi:10.1002/gps.4687
- Laidlaw, K., Power, M. J., Schmidt, S., & the WHOQOL-OLD Group. (2007). The Attitudes to Ageing Questionnaire (AAQ):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2(4), 367–379. doi:10.1002/gps.1683
- Lee, S. (2021). A comparative study of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care recipient between formal care and informal c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73(4), 87–111. doi:10.20970/kasw.2021.73.4.004
- Levy, B. (2009). Stereotype embodiment: A psychological approach to ag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6), 332–336. doi:10.1111/j.1467-8721.2009.01662.x
- Levy, B. R., Slade, M. D., Kunkel, S. R., & Kasl, S. V. (2002). Longevity increased by posi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261–270. doi:10.1037//0022-3514.83.2.261
- Lim, W. G. (2020).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th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s life: The mediated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6(2), 27–51. doi:10.31748/KSEG.2020.6.2.27
- Marquet, M., Chasteen, A. L., Plaks, J. E., & Balasubramanian, L. (2019).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 effects of negative age stereotypes and perceived age discrimination on older adults' well-being. *Aging & Mental Health*, 23(12), 1666–1673. doi:10.1080/13607863.2018.1514487
- Meneses, L., Torres, S., Miller, K. M., & Barbosa, M. R. (2019). Extending the use of the Body Appreciation Scale-2 in older adults: A Portuguese validation study. *Body Image*, 29, 74–81. doi:10.1016/j.bodyim.2019.02.011
- Misra, R., Alexy, B., & Panigrahi, B. (1996).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exercise, and self-rated health in older women. *Journal of Women & Aging*, 8(1), 81–94. doi:10.1300/J074v08n01\_09
- Moser, C., Spagnoli, J., & Santos-Eggimann, B. (2011). Self-perception of aging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outcomes at the age of 65–70 year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6B(6), 675–680. doi:10.1093/geronb/gbr052
- Noh, J. H. (2018). What are needed for satisfied life of the elderly?: Focusing on wealth, health and economic activities. *GRI Review*, 20(2), 287–317.
- Phelan, E. A., Anderson, L. A., LaCroix, A. Z., & Larson, E. B. (2004). Older adults' views of “successful aging”—How do they compare with researchers' defini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2(2), 211–216. doi:10.1111/j.1532-5415.2004.52056.x
- Reboussin, B. A., Rejeski, W. J., Martin, K. A., Callahan, K., Dunn, A. L., King, A. C., & Sallis, J. F. (2000). Correlates of satisfaction with body function and body appearance in middle- and older aged adults: The activity counseling trial (ACT). *Psychology & Health*, 15(2), 239–254. doi:10.1080/08870440008400304
-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A study of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in twentieth-century England*.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bik, N. J. (2015). Ageism and body esteem: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late middle-aged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wome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0(2), 189–199. doi:10.1093/geronb/gbt080
- Sabik, N. J., & Cole, E. R. (2017). Growing older and staying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diverse aging women's perceptions of age and body satisfactio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4(3), 177–188. doi:10.1007/s10804-016-9256-3
- Sánchez-Cabrero, R., Carranza-Herrezuelo, N., Novillo-López, M. Á., & Pericacho-Gómez, F. J. (2020). The importance of physical appearance during the ageing process in Spain. Interrelation between body and life satisfaction during maturity and the old age.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44(3), 210–224. doi:10.1080/01924788.2019.1651187
- Smith, H. J., Pettigrew, T. F., Pippin, G. M., & Bialosiewicz, S. (2012). Relative deprivation: A theoretical and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

- (3), 203–232. doi:10.1177/1088868311430825
- Stets, J. E., & Burke, P. J. (2000). Identity theory and social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3(3), 224–237. doi:10.2307/2695870
- Swift, H. J., & Chasteen, A. L. (2021). Ageism in the time of COVID-19.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4(2), 246–252. doi:10.1177/1368430220983452
- Tajfel, H.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ur. *Social Science Information*, 13(2), 65–93. doi:10.1177/053901847401300204
- Tajfel, H., &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Monterey,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Taylor, M. C. (2002). Fraternal deprivation, collective threat, and racial resentment: Perspectives on White racism. In I. Walker, & H. J. Smith (Eds.), *Relative deprivation: Specification, development, and integration* (pp. 13–4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CBO9780511527753.002
- Tiggemann, M., & McCourt, A. (2013). Body appreciation in adult women: Relationships with age and body satisfaction. *Body Image*, 10(4), 624–627. doi:10.1016/j.bodyim.2013.07.003
- Tougas, F., Lagacé, M., De La Sablonnière, R., & Kocum, L. (2004). A new approach to the link between identity and relative deprivation in the perspective of ageism and retire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9(1), 1–23. doi:10.2190/3WTN-63QQ-EJMG-BGYA
- Triana, M. d. C., Trzebiatowski, T., & Byun, S.-Y. (2017). Lowering the threshold for feeling mistreated: Perceived overqualification moderates the effects of perceived age discrimination on job withdrawal and somatic symptoms. *Human Resource Management*, 56(6), 979–994. doi:10.1002/hrm.21812
- Tylka, T. L., & Wood-Barcalow, N. L. (2015). The Body Appreciation Scale-2: Item refine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Body Image*, 12, 53–67. doi:10.1016/j.bodyim.2014.09.006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ageing 2019: Highlights*. New York, NY: Author.
- Whitbourne, S. K., & Sneed, J. R. (2002). The paradox of well-being, identity processes, and stereotype threat: Ageism and its potential relationships to the self in later life. In T. D.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 247–273). Cambridge, MA: The MIT Press.
- Yu, H., & Lee, M. (2019a). Ageism, attitudes toward aging, and body satisfaction by subjective socioeconomic and health status among older wome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21(5), 586–596. doi:10.5805/SFTI.2019.21.5.586
- Yu, H., & Lee, M. (2019b). The effects of perceived ageis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appearance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Korean older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3(1), 112–124. doi:10.5850/JKSCT.2019.43.1.112